

표지이야기

송필용 작, 청류-흐름01, oil on canvas, 259×181.8cm, 2015

전남대와 홍익대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였고, 서울 학교재갤러리, 이화익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20회 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금호미술관, 청와대, 광주시립미술관등에 작품이 소장 되어 있다.



	여는 시 황무지의 힘	서연정
2	'창'을 열며 누가 인성 회복에 나서야 하나	김 성
3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지상중계 1 세션 시민참여, 문화행정 어디까지 왔나 2 세션 조성사업, 광주시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18	문화인 탐구생활 진정성으로 해설하는 오월지기 - 김용철 문화관광해설사 세계여행 길라잡이, 여행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 - 김근하 대동문화재단 여행사업부장	편집부 편집부
22	문화진단 진정한 문화도시, 광주를 꿈꾸며 문화전당과 푸른공동체가 만드는 광주 동구 문화도심 재생	이동순 정성구
26	호남인물 천상의 올림 정읍우도농악과 전재성	김상집
28	문화청년그룹 놀 줄 모르는 사회, 놀지 못하는 청년들이 놀자 - 데블스	김영빈
30	문화특독 우뇌의 시대, 실버문화를 생각한다 영화 속 도시풍경과 빛고를 광주 행복한 한국, 정치적 관심을 줄이고 사생활 보호에 나서자	김정희 박흥근 김영주
38	재단·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누가 인성 회복에 나서야 하나

김 성_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재단 진흥이사

앞으로 이런 소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아니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모범생 A는 못사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훌륭한 관리의 길에 들어섰다. 1만원도 채 안되는 부정수입을 취한 압표상을 구속시키면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A는 세상의 또다른 어두운 거래가 자신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기 앞에서 설설기는 사람들에게 고급 술 얻어먹는 일이나, 용돈 받아쓰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됐다. 함께 청운의 뜻을 품었던 학창시절 친구에게까지 ‘뺨’이 되어주겠다고 자신의 돈 주머니를 채워달라고 강요했다. 이 젊은 권력자는 어느덧 시궁창 속에서 더러운 금을 찾는 부정부패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B도 젊은 인생은 모범생 같았다. 사회와 부모가 안내하는 대로 교육을 받았다. 재미없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한때였지만, 다투고 나면서 정나미가 떨어졌다. 차라리 학교와 집만 오가며 TV와 오락에 빠지는 게 훨씬 신났다. 졸업을 하고서도 자기 방에서 틀어박혀 컴퓨터만 붙잡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였다. 부모는 자식이 부지런히 취직준비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 모친이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 부친은 아들에게 직장과 집을 얻어주고 내 보냈다. 그러나 어릴 때 버릇은 사라지지 않았다. B는 결혼이나 가정 꾸리는 일을 모두 포기하고, 혼밥족, 혼술족, 혼곡족(혼자 노래 부르기), 혼놀족(혼자 놀기), 혼영족(혼자 영화보기) 등 ‘나홀로족’으로 살아가게 됐다. B와 같은 인구가 우리나라에 벌써 500만이나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다.

C와 D는 40대 남매이다. 동생인 D가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 이유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누나인 C를 성폭행하여 남매의 일생을 망쳐놓아 복수했다는 것이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라는 옛 교훈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런 ‘미친 사회’, ‘유전무죄 사회’, ‘욕망열차 폭주사회’, ‘삼포, 사포, 오폐세대’로 변해 갔을까. 가장 평범한 우리도 혹은 가해자로, 혹은 피해자로서 두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원래 가족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가족중심의 복지체제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와 ‘선(善)’이라는 가치를 깔고 살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탈(脫)가난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효율성, 경쟁(빨리빨리)은 물론 자기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모두가 좋은 것이라는 공리주의가 만연하면서 사회의 가치기준은 달라졌다. 물질주의에 함몰되고, 지혜보다 지식이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것이 A, B, C, D와 같은 인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어떻게 고쳐나 가야 할까? 우선 학습체제를 바꿔야 한다. ‘사회화’, 즉 자유와 책임, 공정사회, 정의가 왜 중요한가를 국민에게 평생 동안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는 각 분야에서 파리를 틀고 있는 기득권을 깨야 한다. 이제 혁명은 불가능해졌고, 개선을 통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소위 ‘87년 체제’를 부수는 것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의 발견과 실천이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한다. 그 ‘약자’ 때문에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나눔, 연민, 상조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왔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그것을 끄집어 내 실천해야 한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선한 마음이 곧 ‘인성’이다. 이 ‘인성’을 실천하면 공정사회, 선진의식 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도층까지 끌고 가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4·13총선은 국민이 변화를 이끌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혼돈의 사회인 지금이 적기(適期)이다. 참고로 인간의 미래가치를 담고 있는 『인성보감(人性寶鑑)』(국회인성함양자문위원회 발간)의 일독을 권한다. 

특집기획_ 지역문화포럼 지상중계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 **일시** 2016년 7월 6일 수요일, 7월 13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다목적강당
- **주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광주광역시연합회
- **주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대동문화재단, 오월어머니집, 광주연구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광주시협회, 한국문화산업연구소

다양한 분야에서 민선 6기 전반기 평가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문화계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문화 영역의 평가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각을 담기에는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전문가와 시민예술·문화단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 방식으로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7월 6일과 13일 두 차례로 나누어 개최된 지역문화포럼은 민선 6기가 표방하는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문화 행정의 구현 및 전당 개관 이후 조성사업의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부응한 광주시의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었다. 그 내용을 지상중계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하며,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은 광주시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 편집자주

프로그램

1 세션_ 시민참여, 문화행정 어디까지 왔나?

- **좌 장** 이동순(조선대 교수)
- **발 표** 박경섭(전남대 연구교수)
- **지정토론** 김일웅(전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토 론** 강 만(광주예총 수석부회장)
선재규(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조성식(광주연구소 기획협력처장)
정두용(청년문화허브 이사장)

2 세션_ 조성사업, 광주시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 **좌 장** 박선정(광주대 겸임교수)
- **발 표** 김하림(조선대 교수)
- **지정토론** 김인천(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 **토 론** 윤만식(광주민예총 회장)
민인철(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성오(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정성구(도시문화집단 CS대표)

1 Session

통치, 협치, 자치 시민참여 문화행정 어디까지 왔나



발표자 박경섭_전남대 연구교수

민선 6기 윤장현시장의 4년 임기 중 절반인 2년이 흘렀고 2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시정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고 최초의 시민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이 글에서는 문화 분야에 한정해서 민선 6기의 지방정부의 2년을 시민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 시점이 민선 6기에 대한 중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한 때이기는 하나 체계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지표와 근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문화정책과 거버넌스

문화권의 실현과 문화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문화거버넌스는 민선 6기의 공약사항이다. 문화시민협의체(광주공동체시민회의)의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한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문화거버넌스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논의기구이며, 거버넌스의 결정사항이 행정에 반영되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거버넌스가 정책의 정당화 도구가 아니라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행정의 책임있는 관계를 확립하고, 결정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결정 사항을 실행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없는 거버넌스가 생산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물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논의형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논의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광주는 이미 문화거버넌스의 선도적 지역이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 하에서 문화분야에 있어서도 거버넌스의 시도는 문예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변화시켰던 것과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광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를 구성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는 독립적 위상의 민간합의체 기구의 요구에 의해 시도되었던 광주 문진위는 결국 광주문화재단으로 해소되었다. 문화거버넌스 실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지역문화거버넌스의 실험과 한계를 보여주는 광주 문진위의 경험, 문진위에서 재단으로 이행에 대한 정확하고 촌촌한 평가와 성찰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문화 관련 거버넌스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기초해서 활성화 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거버넌스와 넓은 의미의 제도(사업과 프로젝트를 포함하는)의 결합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단순히 의견 청취 및 사업 정당화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문화 관련 기관 및 조직과 시민참여¹⁾

정책의 시행은 조직의 구성과 인적 자원의 배치가 핵심이다. 문화정책과 행정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문화재단이다. 광주전남연구원 문화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광주시의 중요 정책을 위한 보고서를 생산해왔다. 일종의 시정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에 비해 광주문화재단의 위상은 다르다. 광주문화재단이 별도의 연구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단이 자체 연구 기능을 갖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

민선 6기 지방정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문화정책이 있었는지 되물어보면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역량의 부재는 문화예술단체가 시에 어떤 요구 사항을 이야기할 때 지원 정책과 자원 배분에 그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지역에서는 광주문화재단에 대해 문화정책 연구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현재 재단 상황은 그러한 요구들을 수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정책을 담당기관으로 광주문화재단으로 지목하지만 정작 재단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거의 없다. 일부 문화예술인들은 그동안 솔하게 광주문화재단을 비판해왔지만 바뀌는 것이 없고 재단도 이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관성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한다. 어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재단을 틀어쥐고 있는 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광주문화재단과 달리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수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광주시민의 성금과 시의 재정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재단임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와 멀어지고 기업에 가까운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언제나 지역성과 국제성, 전문성과 대중성,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달성해야 할 것을 요구받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는 합리적 경영능력을 요구하지만 운영은 민주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광주시로부터 약 3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광주문화재단과 달리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시비 19억, 국비 21억의 개최비를 지원받으며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부에는 시 소속 파견 공무원들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민선 6기는 출범 초기부터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혁신을 예고해 왔고 진단을 통한 '재출범' 수준의 변화를 약속했다.

민선 6기는 '비엔날레 국제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 광주 비엔날레 20년을 평가하고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비전 설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발전계획추진단이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경영진단 및 정책 실사를 다음 달 시작해 12월초에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비엔날레 재단의 조직진단을 실시해 인사 및 조직 운영의 문제점 개선하고 지역전문가를 국제적인 전문가로 키울 수 있도록 '지역작가 쿼터제 도입' 등 지역작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표선임시 외부 기금유치 역량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평가제를 상설 의무화 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 이 절의 광주비엔날레에 관한 서술은 2014년 8월 19일 "미술문화계간지 Post 창간 기념 포럼"에서 발표한 「천상의 비엔날레, 지상의 예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정리한 것이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 공간을 대표해 온 것은 문화예술회관이다.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 또한 항상 시민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통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해왔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혁신 T/F에서도 역대 관장의 부임 전 직책을 검토하고 타 광역시가 대부분 개방형 공모를 채택하고 있고, 전문성과 경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예술회관 관장에 대한 개방형 공모를 요구했다. 개방형 공모가 단시일 내에 받아들여지기 힘들다하더라도 최소한 문화예술과 무관한 공무원이 민선 6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장에 임명되고 단기간 직무를 수행한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방형 공직제나 문화예술 관련 중요 기관의 개방형 공모가 모든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으나 거버넌스가 제시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행정에서 응답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 문화행정

민선 6기 광주시의 문화정책과 행정 분야는 이렇다 할 특색이 없어 보인다.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과제들에 대한 시민 시장 다운 해법도 뚜렷하지 않고, 민선 6기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정책도 부재한 것 같다. 정책도 꿈꾸는 문화도시의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알 길이 없다. 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의 전 분야에 대해 훌륭한 정책과 행정을 펼칠 수는 없다. 그 이유가 시정 철학의 부재만이 아니라 문화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전략적 관계의 수립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문화콘텐츠밸리 사업 또한 광주의 도시계획과 문화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비전과 전략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인해 광주만의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가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힘들다면 전략과 방법의 혁신을 통해 어느 정도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행정을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문화정책과 행정에서 시민참여적 요소와 시민 사회의 요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문화 관련 법령, 중장기 계획, 재정, 민선 6기의 혁신 행정(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 참여예산제 등)을 조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문화거버넌스의 비대한 구조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문화부시장 직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 관련 거버넌스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에 기초해서 활성화 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거버넌스와 넓은 의미의 제도(사업과 프로젝트를 포함하는)의 결합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단순히 의견 청취 및 사업 정당화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개방형 공직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개방형 공직제의 확대가 항상 행정의 혁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행정 분야 공무원의 순환형 근무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 개방형 공직제에 대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인사로 인한 잡음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비엔날레재단을 비롯한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과 관련된 실천적 프로세스가 제시되어야 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은 단순히 시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비엔날레재단이 보여주듯이 재정적 독립이 기관의 시민참여에 의한 운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성의 확대가 단순히 효율성과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 운영 방식으로 정립되어서는 안 된다. 시와는 수평적 관계를 맺고 시민들과는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 정책 생산 기구 및 인력 양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위상과는 다른 민간 단위의 정책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대학의 전문가들에게 문화정책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갑자기 정책 생산 및 아젠다 설정 능력이 배양되는 것은 아니다. 

1 Session 지정토론 민선 6기, 시민 참여 문화공동체 구현

토론자 김일웅_ 전 광주광역시문화관광체육실장

민선6기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행정에 노력

출범 초기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시민아고라, 광주공동체시민회의 등과 같이 시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부터 광주도시계획2030 수립, 청년정책, 시민 참여예산제 등 직접적인 정책반영에 참여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가 큰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민선6기 광주시의 문화정책과 행정분야에 대해 특색이 없어 보인다는 견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시는 문화정책의 화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묶여 자발적인 문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여력이 부족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 주도의 거대사업이다보니 지역과의 소통보다는 아시아 수준의 고급 콘텐츠를 지향하며 아시아성과 글로벌 소통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지역차원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빠져 집안을 살피는데 소홀했던 점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민선6기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전달하는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통해서 문화정책 기반시설과 단체를 조정하려고 하기 보다는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기존의 문화시설과 문화단체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다 보니 문화정책에 특색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민선6기 문화정책 : 문화영역의 시민주권은 협업콘텐츠의 개발과 참여에서부터

이제 문화정책의 성공여부는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는 차원이 아니고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예술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관건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공을 들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계획하여 그동안 지역 내 생활공간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다양한 사업들을 묶어 전당 주변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지고 보여지도록 협업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다. 프린지페스티벌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타 지역 지자체 및 문화재단, 각급 문화예술기관단체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문화도시들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문화 협업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민선6기 후반기 :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의 상설 배치로 매력적인 문화공동체 구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양림동~푸른길 구간을 이어서 누구나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프린지페스티벌 등을 통해 세계의 문화가 상시적으로 교류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고, 중외공원 주변은 광주비엔날레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특성화시키고,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전통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남도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미래먹거리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문화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권과 송암산단권을 연계한 문화산업정책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1 Session 토론문

토론자 강 만_광주예총 부회장

첫째 지정토론자의 말에 의하면 “관료중심의 문화행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에 기초하여 문화민주주의가 활짝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면서 과연 전문 문화예술인과 얼마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 만 여명의 예술인을 대표하는 광주예총에서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라도 한 번 갖자고 그렇게 애원 했음에도 시장님은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미사어구의 말잔치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술인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정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보면 후반기 2년 동안에 육성하고, 구축하고, 조성하고, 특화할 문화정책 사업이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은 사업들이 참으로 현란하고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 지역의 예술인들과 뜻을 모아 지역예술을 진지하게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업은 언뜻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현 광주시장은 예향이요, 문화수도의 시장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광주에는 인문학의 중심이요 보고가 되는 문학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지역의 시, 군에 까지 건립되어 있는 문학관이 놀랍게도 문화수도라는 광주에는 없습니다. 우리 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대표적 시문학과 시인이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인데, 정지용과 김영랑은 자기들의 고향에 다 문학관이 세워졌지만, 가장 중심인물이었던 박용철만은 고향인 광주에 문학관은커녕 기념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광주의 문화수준입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문학단체들이 수없이 건의하고, 진정하고, 탄원 했지만, 시장님의 머릿속에는 아예 문학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앞에서 굿 장구 치고 노는 것만 문화라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좀 더 넓은 식견과 원대한 비전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1 Session 토론문

토론자 선재규_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민선 6기의 시민참여 문화행정과 시정 정책과제로 분류하여 광주문화재단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총 5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민선 6기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는 거버넌스 사업이 광주 문화발전 중장기 기본방향 2030수립·시행 등 3개, 시민주체 사업이 광주형 시민주체의 문화메세나 운동인 문화보듬 1만 운동 전개 등 5개, 시민주권 사업이 중장년 문화예술교육 운영 등 3개 사업 등 총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초가 2018년 까지 확대 발전되어 간다면 “꿈꾸는 문화도시”는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



광주문화재단 민선 6기에 무엇이 달라졌나?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된 광주광역시 출연 공법인으로 2011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광주문화재단은 민간의 입장에서 국가나 광주광역시의 문화행정을 위탁받아 광주 문화발전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이 정부나 광주광역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간의 입장에 있지만, 시민사회문화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나 광주광역시의 대항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문화단체와의 사이에서 그 소통과 매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고 조화롭게 수행하느냐의 여부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로 풍요로운 광주, 예술로 아름다운 시민”을 사명으로, “시민의 문화 주체화, 광주정신·문화의 허브”를 민선 6기 경영 비전으로 설정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문화공동체 광주 조성, ‘문화 트라이앵글’로 협업 체계 구축, 광주문화 복권을 위한 플랫폼 구축, 문화 브랜드로 ‘글로벌 시대’ 개척, 나눔·도움의 대동정신으로 문화민주주의 실현이라는 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시민사회문화단체-광주문화재단’ 간 문화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광주 문화의 ‘하모니 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 Session 토론문

토론자 조성식_광주연구소 기획협력처장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광주공동체시민회의의 문화예술관광위원회 운영은 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문화거버넌스,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민주주의의 확장에 해당한다. 현 단계의 이러한 문화거버넌스, 문화민주주의는 본격적인 문화행정, 문화민주주의에 미 해당 되는데 문화행정의 대상과 정책 모두를 시민참여 열린 대상으로 전환하지 않아 대표성 없는 소수 전문가 중심의 문화행정에다가 이름뿐인 시민참여 문화행정이 섞여 있다. 온전한 시민 참여라는 열린 문화거버넌스로 바꾸어가는 문화의 민주화 추진과정에서 대표성 없는 소수 전문가만의 관여영역과 형식적인 문화거버넌스 도입 영역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남도



의 자연·역사·전통, 광주공동체, 5·18정신 등에 대한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민주주의 추진과정에서 제한적인 문화민주주의의 도입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시 현 단계 문화행정은 과거의존적 문화행정, 현재의 반복된 문화행정, 보은 문화행정 관행에 벗어나지 못하고 무늬만 미래지향적인 문화행정을 표방한데서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시정철학이 시민참여, 시민행복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작동하려면, 있는 대로 현재를 직시하고 개방, 개혁을 통해 새 대안을 찾아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금남로,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양림동, 평촌마을, 충효마을 등과 문화재단, 비엔날레, 문화예술회관 등의 문화예술, 문화관광 정책이 향후에 문화거버넌스, 문화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전국적·아시아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존, 현재반복의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민선6기 후반기 문화예술·문화관광거버넌스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만이 광주시의 향후 문화예술·문화관광을 창달하고 진흥할 수 있다. ^^

1 Session 토론문

토론자 정두용_ 청년문화허브 이사장

본인은 청년문화정책과 일자리의 관점에서 토론을 요청받았으나 발표문과 지정토론문에서는 따로 세부적인 청년문화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민선6기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문화영역의 청년참여, 청년주권 어디까지 왔나?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청년들은 집주인으로 살고 있나?” 도시를 집으로 비유하면, 집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시민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주변 청년들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리는 집주인은커녕 기껏해야 주인집에 얹혀사는 하숙생인 것 같다.”

가장 역동적이고, 실험적이고, 신선한 창조의 에너지를 뿜어내야 할 청년들이 문화 프로그램의 주체로,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프로그램의 객체(손님)나 이용대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 지금 광주 청년들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다.



민선6기,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청년축제를 살펴보면 이런 점이 드러나는데, 전액 시의 예산이 책정된 규모 있는 행사였지만 관 혹은 전문가 주도에서 벗어나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축제’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껏 문화 프로젝트의 객체와 이용대상에 그친 청년들이 주체로서, 주인공으로서 활약할 명석을 깬 것이다.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광주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운영 주체로 믿고 행사를 추진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공표한 점에서는 그 방향성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물충축제, 청년문화예술위원회 등 청년을 참여시키고 청년을 주체로 보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서두에 서술했듯 청년문화정책 또한 시도는 긍정적이거나 이를 뒷받침할 실행력과 기획력의 부재가 무척 아쉽다. 청년을 주체로, 주인공으로 보겠다는 시도는 계속되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과 똑같이 청년을 믿지 못하고, 간섭하고, 성과위주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제 적용에서의 괴리가 크게 느껴진다. ^^

2 Session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광주시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발표자 김하림_조선대 교수

기대와 우려

2015년 마침내 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으로 표기함)이 개관했다. 오랜 시간 많은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전당에 대한 기대는 상상보다는 더 컸다고 보여진다. 이 기대는 현재적 시점에서는 아직 충족되지 않았고, 우려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8년여 이후인 2023년이 경과한 후의 예상이지만, 제시된 기대효과(2011년 업무보고 자료)는 1)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 '시민참여 활성화, 문화예술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112,000명 고용창출, 2) 경제적 파급효과로 '민간자본 유치 확대, 고용창출,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및 8조 7천억원의 생산유발이었다.

이러한 장밋빛 꿈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버릴 수 없는 이유는 개관한 이후 전당이 기대치 만큼의 문화적 폭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민주평화교류원'이 완공되지도 않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당의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를 볼 경우 우려되는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전당의 운영을 위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으로 표기함)은 조성위원회, 문화부, 광주시라는 세 주체가 함께 화학적으로 결합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성위원회는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당 운영 주체인 문화부와 조성사업의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광주시와의 상호 협력관계는 조성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인과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으나, 지난 시간 동안 문화부와 광주시의 결합은 그저 물리적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당 만으로 조성사업이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도 자명하고, 광주시가 담당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나머지 부분도 전당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도 자명하다.

이런 규모의 실험적 복합문화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나 노하우는 문화부도 없고, 한국도 없다. 따라서 모든 면은 새롭게 시도하고 실패를 각오해야 한다. 문제는 실패를 딛고 넘어설 의지나 역량은 상호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조성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광주시의 연차별 실시계획

‘특별법’에 따르면 문화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이 두 계획은 수립 주체는 다르지만, 목표는 ‘조성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있을 것이다.

조성사업은 1)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2)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4) 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제고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당이 개관함에 따라 2), 3), 4)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1)은 문화부의 몫이지만, 2)~4)는 광주시가 주체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2)~4)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해왔다. 2015년 12월에 수립된 <2017 연차별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조성사업’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1단계(2004~2008년) : 기반조성단계
- 2단계(2009~2014년) : 본격추진단계
- 3단계(2015~2019년) : 성숙단계
- 4단계(2020~2023년) : 정착단계

1, 2 단계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2016년 현재는 3단계인 성숙기에 해당한다. 3단계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7대 문화권 사업 확대, 문화관광 사업 성숙, 문화교류 활성화, 본격 사업 추진’이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4단계인 정착기(2020~2023)는 ‘전당운영 정착, 7대 문화권 조성완료, 문화도시 기반조성 완료,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3단계나 4단계 모두 ‘전당 운영의 활성화, 정착’이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 것 처럼, 연차별 실시계획에서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전당’이다. 다시 말하면 전당이 발휘할 문화적 폭발력이 광주의 문화예술은 물론 사회적 생산력을 증가시키는데 관련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3단계까지 수립해 온 광주시의 연차별 실시계획은 기본적으로 광주시 전체에 문화가 흐르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기본 방향이나 분야별 방향을 살펴볼 때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혹은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재정과 직결되어 있다.

열악한 광주시 예산을 생각할 경우, 연 500억이 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2단계의 사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대로 계획으로만 존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성사업은 반쪽짜리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1) 전당은 조속히 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현재 전당은 기대치나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다. 오히려 전당이 임대사업에까지 나서면서 지역의 빵을 잠식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대한 문화원의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방식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소프트 웨어나 휴먼웨어로는 어렵다는 것을 전당이나 문화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광주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부와 광주시 사이에 갈등이 존재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양측의 접근 자세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노정되어 왔다. 이제 전당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과 이해의 자세가 요구된다. 전당 프로그램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힘들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까지 예상한다면, 네트워크 수준을 넘어서는 상시적 결합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 프로그램의 설계부터 전당-광주시의 사전 고민과 논의가 함께 녹아들어가야 전당이나 광주시가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2) 연차별 실시계획의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연차별 실시계획은 재정확보가 되지 않으면 탁상위의 공론일 뿐이다. 이로 인해서 '2) 예술진흥 및 문화·광고·사업 육성, 3)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에 속하는 몇몇 사업들만 진행될 뿐 나머지 사업은 계획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특히 '1)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속하는 7대 문화권 사업은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광주시는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7대 문화권은 각 구별로 안배된 측면이 강하다. 이로 인해 어느 구를 먼저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7대 문화권사업은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문화부는 이 책임을 광주시에 전가할 것이다.

따라서 7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논리와 설득은 광주시의 몫이다. 7대 문화권 중에 예산이 비교적 적게 투입되어 광주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나 시급성이 더 요구되는 사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서 역으로 문화부에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부는 광주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서 중앙정부에 요구만 한다는 식의 변명을 해왔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한편 중앙정부의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먼저 예산을 확보했으니, 중앙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 2023 및 그 후를 대비해야 한다.

도심 한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대 공간으로 2023년 이후에 전당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다. 또한 특별법은 23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산의 확보나 기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향후 지역을 이끌어가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탱할 청장년층 중심의 조직과 기구가 필요하다. 명망가 위주나 목소리 큰 집단 위주로 전당을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전당의 문화적 파워나 예술적 역량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을 상정한다면, 이런 측면과 지역의 휴먼웨어가 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담당하는 것은 청장년층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장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학습을 제공하는 다양한 모색을 광주시는 도모해야 한다. '축적-교류-확산'의 자생적 확대재생산 구조를 지역이 구축할 때 지역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2 Session 지정토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대응방안

토론자 김인천_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2006년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7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9년부터 하위 실행계획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아특법에서 제시한 조성사업 추진계획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3년 1차례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틀이 짜여지게 되었다.

국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결정 지원, 아시아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주도하고, 광주광역시 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며 문화예술 진흥, 시민문화 진흥,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시민 문화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유치, 문화산업관련 출연 출자 등의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화전당 개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하여

10여년의 준비기간과 지역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난해 말 문화전당이 개관하였지만 당초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문화적 폭발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 광주발전을 견인할 든든한 버팀목이자 광주가 아시아 각국과 문화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문화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문화발전소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추진

그동안 7,030억원이 문화전당에 집중되었고, 건립 이후에도 연간 700~800억원 규모의 운영비와 콘텐츠 개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지자체에 지원하는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우리시의 입장에 서도 안타까운 입장이다.

올해 2018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실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연차별실시계획 추진단(TF팀)을 확대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미 추진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양보다는 질 위주의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에 나섰다.

조성사업 해결 방안

광주시는 문화전당을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문화와 도시재생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시비로 추진해오고 있다.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속하는 7대문화권 사업이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1,188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그동안 문화전당과 연계하여 문화전당권과 아시아문화교류권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 재원현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빠르고 추진 가능성이 높은 개별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 Session 토론문

토론자 민인철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창·제작 운영체계 개선 필요하다.

문화전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콘텐츠 창·제작 선순환 체계 확립 필요한데, 현재 문화정보원에서 구축된 원소스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문화전당내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특히 문화전당 조직이 경영지원본부, 아시아문화연구소, 창제작센터, 공연사업본부, 전시사업본부, 교육사업본부로 개편되었으나 이들 부서 간 협업 구조가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문화전당과 지역 문화산업 연계를 위한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센터’ 건립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센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5대 전략콘텐츠와 연계한 체험형 융합콘텐츠 육성을 목적으로 문화와 ICT를 융합한 체험형 융합콘텐츠 기술 및 시장 선점,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융합콘텐츠제작 원소스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소재를 활용한 협업 및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간 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지역 예술정책 방향은 창작활동 작품제작비 지원, 지역내외부의 청년예술인 멘토제 확대, 지역 예술계 청년예술가 진입 장벽 낮추기, 전용 발표공간 지원, 창의적, 실험적 예술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 강화로 가야 한다. 또한 문화중심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기획인력 양성, 유행의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신세대 계층과 교감할 수 있는 청년문화기획자 육성하는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전당과 광주시 협력사업 추진하여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영상, 음향, 무대장치 등 문화전당과 연계된 지역 공연예술 파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2 Session 토론문

토론자 윤만식_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회장

김 정책관의 토론문을 보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문화 전당권으로 충장로, 금남로 등의 정비사업과 5·18광장과 금남로의 프린지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등의 분위기 조성 사업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 문화 교류권으로 사직공원의 아시아 음악타운 조성 등과 양림동의 개화기 선교사 건물과 전통가옥 등의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이고, 그 외 지역은 뚜렷한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까지 연차별 사업이라 함은 특별법에 명시된 한정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배분하여 기한까지 마치는 것이 통념인데 정책관의 글에서 30% 수준밖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된다니 7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동안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사업들을 하려는 지 의심이 먼저 든다.



2015년 11월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시 민주평화교류원의 사정상 올해 5월에 개관하기로 교류원 담당자인 황지우 교수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올 5월에도 개관을 못하고 있다. 도청 본관, 별관, 민원실, 경찰청, 상무관 등 5개 건물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고 광주정신을 오롯이 담아보고자 철거를 못하게 하고 리모델링만 하여 내부에 '10일간의 나비떼'를 보여준다는 컨셉이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니 전당 관계자에게 그 이유나 듣고 싶다. 계약위반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시 전당 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광주에서 문화예술에 관련하여 학술, 행정, 기획, 유통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수십 가지의 유·무형의 문화예술 행위를 하는 예술가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더군다나 광주 시민들의 피의 대가(?)로 지어진 공간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과연 몇 사람이나 공연이나 전시를 하고 있는지 올 11월에 전당 개관 1주년 기념일에 데이터를 모아서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아무리 국립이고, 국가재산이고 문체부가 좌지우지 하는 공간이지만, 최소한 지역민에게 주인의식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나마 올 8월에 열리는 아트 페어를 전당 전시실에서 한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2 Session 토론문

토론자 정성구_도시문화집단CS 대표

문화도시환경 조성사업, 어디까지 왔나?

발제자와 다른 견해이긴 하나, 도시환경조성분야가 전혀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크게 7대문화권 조성사업, 문화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찌되었든 조성사업의 틀 내에서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으며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거점 프로그램), 사직공원의 풀리와 전망대 리노베이션도 조성사

업의 틀에서 진행되었다. 양림동도 문화교류권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어번폴리도 역시 도시환경 조성사업 분야에서 관리되는 사업이다. 다만, 7대문화권 사업의 경우 전당권과 교류권 이외 다른 문화권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광주시의 민첩한 대응 부재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약화, 전당 우선 건립에 따른 순위 밀립 (실제 전당건립에 집중하던 2012~2015까지는 거의 모든 조성사업을 전당 가동 이후로 연기함), 국비예산의 부족(이것도 역시 연차별실시계획 승인 결과 회신서에 언급됨) 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물론 종합계획상의 내용에는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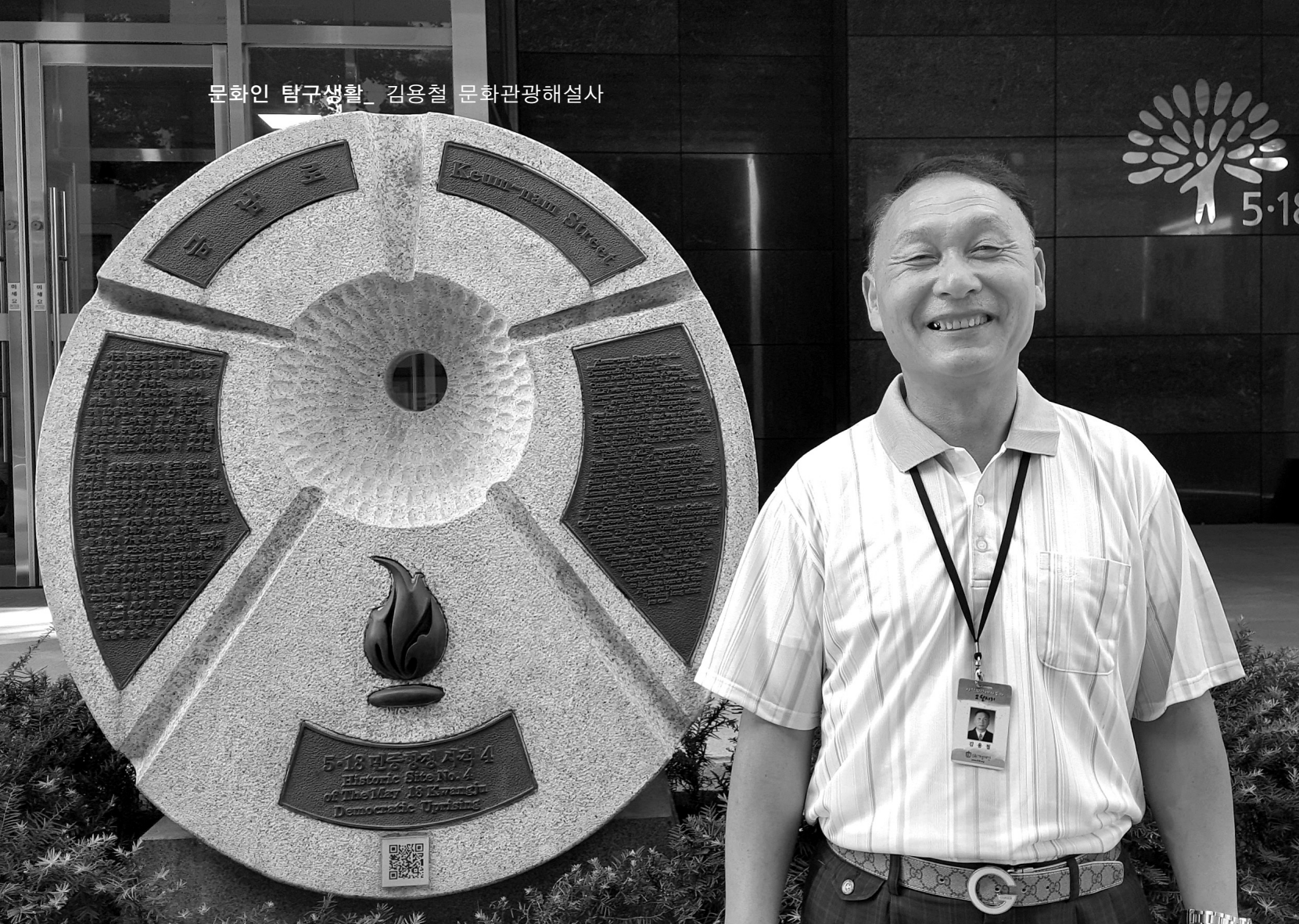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아특회계 재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특별법 42조) 아특회계는 2008년 설치 이후, 문광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국비 전입금을 더 늘리고,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국고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사업은 70%까지 가산적용(종합계획 3장,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을 하면 좀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7대문화권 사업은 그 정체성이 모호한 것이 일부 있어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추진하는 창의도시, 문화콘텐츠산업, 동구의 도시재생선도사업과의 연계 등 전당과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채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이 함께 광주를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재 추진되는 전당권 중심의 프린지페스티벌, 광주폴리 III, 국토환경디자인사업,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에 통합적으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간 전당건립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이유로 7대문화권을 비롯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전당이 건립된 지금부터는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집중하자. 광주가 진정한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과 7대문화권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 및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문화전당 건립은 단순히 문화시설 설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통합되어야 한다. 전당의 진입로이자 광주의 상징가로인 금남로의 리노베이션, 전남여고, 중앙초교 등 20여개에 달하는 근대건축유산의 자원화, 전당권과 양림동을 잇는 도심 문화트레일, 도심 문화적 자원(예를 들어 창작스튜디오, 작은 박물관, 갤러리, 유스호스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일빌딩, 시민회관, 적십자병원 등의 활용구상, 광주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소개된 광주폴리와 푸른길의 활용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



진정성으로 해설하는 오월지기

— 김용철 문화관광해설사

편집부

지역문화교류재단이 매주 화요일에 운영하는 책마실 세미나에 김도원 광주연구소 사무처장의 소개로 참여한 김용철 선생을 처음 만났다. 흰칠한 키에 특유의 서울 말투로 일본유학을 다녀왔고, 현재 일본어로 문화관광해설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선생의 첫인상은 굉장히 차분하고, 다정다감해 보였다.

인터뷰 차 그를 만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갔다. 인터뷰 첫 질문으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많이 부끄러워하며, 주섬주섬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냈다.

그는 조선대 일어과를 졸업하고, 결혼 후 1984년부터 1988

년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했다. 일본에서 비교문학 연구 하았는데, 『가난한 날의 행복』, 『조선시집』 등을 저술한 시인이자 수필가인 한국의 김소운(金素雲)과 『무희(舞姬)』, 『기러기』 등을 저술한 일본 문학의 근대화에 큰 공헌을 한 소설가이자 군의관이었던 모리오가이(森鷗外)의 작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일본 유학 다녀와서 서울에 있는 일반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하고, 개인사업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였지만, IMF 사태로 모든 것을 청산하고 광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가 처가인 광주에 터전을 잡고서, 본격적으로 일어와 문학을 공부한 기반으로 문화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음악을 좋아해서 월간 오디오 잡지사 편집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으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광주 최초의 오디오 모임인 '예음회'를 만들어 활동 하면서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 감상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된다. 또한 예음회를 시작한 해부터 한국어와 일본어로 해설하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오월지기(5·18민주항쟁 사적지를 안내하는 해설사) 활동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문화관광해설사로 광주에서 활동하면서 그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2012년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외국장각 의궤 특별전시' 해설을 손꼽았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다음으로 전시회를 광주에서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최초로 공개하는 조선시대 의궤는 프랑스에서 145년 만에 돌아 온 것으로 조선왕실의 국가 행사가 끝난 후 그 행사에 관한 자료를 생생히 적어놓은 문건으로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될 만큼 '기록문화의 꽃'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금, 토,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설 정도로 문화해설을 하면서도 매우 보람되고 뿌듯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의궤의 소중함 뿐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공부하면서 재벌 서지학자인故 박병선 박사의 열정에 감동하였고, 의궤 반환을 목전에 두고 돌아가신 박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최근에는 국립 현충원으로故박병선 박사를 만나러 가기도 하였다.

김용철 선생은 오월지기로서도 오랫동안 활동했다. 그가 오월지기로 활동한 이유는 5·18 당시 끝까지 활동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마음으로 5·18영령을 더욱 알리고 추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했기 때문이란단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일본어로도 해설하면서 일본인에게 국



립 5·18민주묘지를 보여주며 투쟁의 역사 5·18을 설명하였고, 많은 일본인들이 5·18정신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5·18 정신은 ‘민주’, ‘인권’, ‘대동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보기에 문화해설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꼭 역사를 기억하라고.”

요즘같은 무더운 날씨에도 광주정신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서 온 일본사람들에게 광주를 알리기 위해 도청 앞에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민주광장을 설명한다.

최근 그는 평생교육진흥원 소속의 시민활동가로 '마을공동체', '광주정신', '문화예술'을 주제로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다. 그가 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광주에 대해 잘 알고 광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아쉬운 점은 본인이 좀 더 젊었으면 아이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던단다. 이외에도 그는 동구커뮤니티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일본어 교육도 하였고,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물었다. “5·18 역사 왜곡과 폄하가 아닌 제대로 된 진실규명으로 세계적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가 좀 더 광주의 아픔을 씻고 평화로운 광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이를 알리는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광주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김용철 선생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진정성으로 해설하는 그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문화인 탐구생활_ 김근하 대동문화재단 여행사업부장

세계여행 길라잡이, 여행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

- 김근하 대동문화재단 여행사업부장

편집부

무더운 여름, 김근하 부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간 대동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응대에 바쁜 그녀를 만났다. 인터뷰 당시 그녀는 동유럽(독일 뮌헨과 체코 프라하)과 몽골의 하계 세계문화탐방 일정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현재까지 약 40개국을 여행한 그녀, 현재 대동문화재단에서 여행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녀가 해외여행과 인연을 맺게 된 시기는 중학생 시절 이었다. 동성여중 1학년 때 방과 후학습으로 현지 원어민(호주) 영어교육을 열심히 들으며 해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 원어민 선생님이 운영하던 회화학원을 다니는 인연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첫 여행으로 호주배낭여행을 가게 되었다. 중학생 2명과 광주여대 학생 8명, 총 10명이 함께 한 배낭여행이었지만, 본인과 대학생 1명 빼고, 10명 중 8명이 여권 분실, 배낭 분실 등의 문제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행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여행을 계기로 더욱더 고등학교 때 호주로의 유학을 심각하게 부모님께 졸랐을 만큼 세계여행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여행에 관한 모든 책자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모든 정보를 스크랩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설득에 결국 유학은 잠시 접어두고, 광주대 관광학과를 입학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녀는 인생의 친구와 멘토를 만나게 된다. 서로의 첫 인상은 안 좋았지만, 대학동기 백상은 친구와 함께 여행에 관한 코드가 맞아 함께 열심히 배낭여행을 다녔다. 그 외에도 대학생활을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녀가 박종찬 교수님과도 인연이 되었다. 반년동안 준비했던 영국유학도 포기하고, 박종찬 광주대 교수님의 제안으로 광주대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현장실습 겸 제안한 여행사 근무, 광주축제 기획프로젝트 참여 등 매일 교수님 연구실을 놀이터 삼아 관광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 결국 7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대동문화재단도 박종찬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연이 되었다.

그녀는 본인이 여행하는 마음으로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그런 기획을 할 때 마다 가슴이 벅찰 정도로 설렘을 느낀다. 그래서인지 현지가이드는 이런 일정은 처음 봤다는 평이 늘 있었고, 함께 한 여행한 사람들은 특별한 여행이라며 “역시 근하씨야”라는 평가를 할 때 마다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고 그녀는 말한다.

당찬 그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도 연애도 20대 시절의 후회

가 전혀 없을 정도로 온 힘을 쏟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놀았다. 그래서인가. 조금은 차가운 첫인상 입에도 마당발이다. 결코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지만, 인연이 되면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이 있기에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납득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의 성격 탓에 대충하는 법이 없고, 예의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으며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을 늘 예의바르게, 예쁘고 단정하게 꾸며 내보인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이 지금의 김근하 부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나에게 그녀가 말한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여행에 관한 한 ‘김근하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하는 여행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4층 건물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여행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곳으로 꾸미고 싶단다.

여전히 여행으로 설렘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렘으로 알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녀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의 열정적인 활동도 기대해 본다. 



1 아이슬란드 2 캄보디아

진정한 문화도시, 광주를 꿈꾸며

이동순_조선대 교수, 재단 운영위원



유독 문학적 유산을 집적, 계승, 향유할 수 있는 공간만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가 키운, 광주를 빛낸 문학인들의 영원한 고향, 그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언제까지 문학관 없는 유일한 문화도시, 광주로 남아 있을 것인가. 문화 도시의 다른 이름, 문학의 도시를 위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땀 일이다.

문화관광체육부가 국립한국문학관 공모를 마감한 결과 무려 24개 지방단체가 신청서를 냈다. 2년 전부터 국립한국문학관을 공모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못해 과열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오죽했으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유치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다 못해 공모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겠는가. 물론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산구와 동구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신청서를 냈다. 작은 문학관하나 없는 광주에서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신청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광주는 문학의 고장이다. 용아 박용철은 한국시문학사의 빛나는 별로 『시문학』을 발행하여 ‘시문학파’를 탄생시킨 주역이다. 설강 김태오는 동요 〈강아지〉로 식민지하 어린이들의 동심을 구현한 한국소년운동사의 출발점이다. 다형 김현승은 「눈물」의 고결한 언어로 한 광주의 문학적 토양을 튼튼하게 하였다. 광주고등학교 출신의 강태열, 박봉우, 박성룡, 주명영, 정현웅, 윤삼하, 민재식은 한

국전쟁 직후 시단의 새로운 세대의 주역들로 등장하여 문학을 빛냈다. 뒤이어 1960년대 이성부, 문순태, 조태일은 전라도 정신을 토대로 유신정권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저항정신을 대표하였으며, 조태일이 발행한 『시인』을 통해 등장한 김준태와 양성우는 시대를 견인하는 선두에 있었다. 이 시인들을 생물학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성장시켜 문학가로 길러낸 곳이 바로 광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는 단 한 곳의 문학관도 없다. 뿐만 아니라 박용철의 생가를 제외하면 작가들의 생가도 하나 없다. 이렇게 많은 문학인들을 배출하고도 문학관 하나 없고 생가를 유지하거나 복원하지 않은 도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한 광주광역시가 유일하다.

물론 광주광역시에서도 빛고을문학관을 건립하고자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빛고을문학관 건립이 무산되고 국고가 반납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광주광역시가 문학관 건립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었다는 것에 있다. 현 광주광역시장이 모 잡지와 나눈 인터뷰에서도 빛고을문학관은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중에 있고 건립



1 강진시문학파기념관 2 보성태백산맥박물관 3 장흥천관박물관 4 통영청마박물관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대답 외에는 어떤 의지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것이 문화도시 광주광역시가 펼치는 문화정책의 민낯이라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광주광역시에는 광주의 문화예술을 집적한 공간으로 광주 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시립역사박물관, 광주시립무용단, 광주시립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이 공간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제공하였고, 정신과 문화유산을 계승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유독 문학 적 유산을 집적, 계승, 향유할 수 있는 공간만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가 키운, 광주를 빛낸 문학인들의 영원한 고향, 그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은 문화예술의 정수인 한국문학 자료를 한 자리에 모아 문학정신을 계승, 보존, 연구하여 널리 향유하며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구심점이라는 철학적 사유에 기반한 것이다. 전국의 모든 도시와 지방, 어디를 가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생가와 문학관 한

두 개 없는 곳이 없다. 전남의 곳곳에도 크고 작은 문학관과 생가가 유지, 혹은 복원되어 있고,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문학 지망생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바로 이것을 겨냥한 것이다. 결국 문화관광체육부가 과열된 유치전에 국립한국문학관 공모사업 자체를 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문학관이 갖는 상징성과 새로운 문화 콘텐츠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언제까지 문학관 없는 유일한 문화도시, 광주로 남아 있을 것인가. 문화도시의 다른 이름, 문학의 도시를 위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땔 일이다. 광주문학관의 건립으로 광주가 문화도시임을 증명해 보일 일이다. 한 지역의 정신문화 유산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요,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문화공작소가 바로 문학관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문화도시 광주를 꿈꾸며, 광주광역시는 광주문학관의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문화전당과 푸른공동체가 만드는 광주 동구 문화도심 재생

정성구_ 도시문화집단CS 대표, 재단 운영위원



문화전당 주위의 도심은 광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많은 삶의 흔적과 역사를 담고 있으며 도시의 공간구조상 다양한 활동이 집중된 곳으로 도시의 성장과 비례하여 그 역할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동구의 도시재생은 이러한 광주의 역사적 중심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도시재생, 최근 국내 도시정책의 최대 화두이다. 2013년부터 정부는 쇠퇴도심과 지방 중소도시의 재생을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법률의 제정, 예산의 확대 편성, 선도지역의 지정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동시에 도시재생은 각 지역의 현안과 직결되면서 그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재생은 주민이 그대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후한 주거시설을 고치든 개축을 하든 쓸만하게 손보고, 아이들 키우고 어르신들 돌보면서, 함께 지내는 편안한 이웃들과 그럭저럭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오래 살 주민이 있어야 한다. 그 주민이 오래 살 마음을 내고, 오래살 방법을 함께 궁리하고 도모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재생은 주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전부가 아니다. 커뮤니티 공간 지어주고 마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도시재생은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커뮤니티를 회복하며 새로운 도시기능을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기제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때 우리는 이것을 주민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을운동이자, 이웃간에 함께 삶을 도모하는 사회운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2014년 5월 광주 동구는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11곳의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중 한곳으로 지정되었다. 선도지역 사업은 주민이 행정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주민과 수시로 접촉하고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과 지역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동구 도시재생

도시의 역사적 환경은 도시 활동이나 도시 생활의 오랜

축적 속에서 배양되어온 것으로, 역사적으로 연속성 있는 도시 공간이나 전통문화는 시민 고유의 귀중한 재산이다. 문화전당 주위의 도심은 광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많은 삶의 흔적과 역사를 담고 있으며 도시의 공간구조상 다양한 활동이 집중된 곳으로 도시의 성장과 비례하여 그 역할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여 왔다. 동구의 도시재생은 이러한 광주의 역사적 중심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예술의 거리 일원에서는 폐쇄된 미술학원을 재생한 ‘공동예술두레마당’을 거점으로 ‘예술활용 재생사업’이 펼쳐지며, 동명동 일원 주거지구에서는 빈집을 재생한 ‘업사이클링센터’를 거점시설로 하여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이 펼쳐진다. 충장5가 일원 상가지구에서는 폐쇄된 장공장을 재생하여 미디어아트와 창의산업 거점공간을 만들고 재생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문화산업 활성화사업’이 펼쳐진다.

지금까지의 기존 정비사업계획들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을 단순 나열하거나 백화점 식으로 취합하는데 그쳤다면, 동구의 도시재생은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들을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접근방식을 갖고 있다. 동구 주민의 유무형의 삶과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시문화 형성과정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순한 물리적 거점, 공간만들기, 이벤트 사업의 나열이 아닌 재생이 도시의 문화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1) 문화전당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창출

문화전당은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시설이다.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전당의 문화적 에너지가 도시재생 사업현장에 순환하며 재생사업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문화전당의 건

립 역시 광주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이자 기폭제’로 볼 수 있다. 문화전당에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뿐만 아니라, 전당 창제작센터와 주변의 목공, 철공, 전자상가가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2)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 운영 및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주체 간 갈등해소가 필수적이다. 광주동구는 선도지역 중 최초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를 플랫폼으로 하여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구에만 집중해 줄 수 있는 활동력과 현장성이 강한 사업총괄코디네이터를 위촉하고 부문별 코디네이터의 전문성 강화, 주민리더 발굴 등을 통해 도시재생 참여주체의 역량강화와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경제적, 사회적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광주동구 도시재생은 선도지역 지정 당시 근린재생형으로 지정되었으나,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중심시가지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의 국비지원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도시재생기금의 확충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부문의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4) 관광지가 아닌 이웃이 사는 곳을 만들자

도시재생은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동명동 카페거리와, 푸른길 공원, 미디어아트 산업센터는 테마파크 같은 관광 명소 만들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 사는 곳’이 도시재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천상의 올림 정읍우도농악과 전재성



김상집_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재단 진흥이사

7월 14일 정읍우도농악전수관을 찾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이면서 정읍국악원 예술감독인 유지화 씨를 만났다. 필암서원이 있는 장성군 황룡면 필암이 고향이라니까 예전에는 굿하러 자주 갔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유지화(1943년생) 씨는 15세 때부터 일흔 넷인 지금까지 굿판에서만 살아오신 분이다. 전재성 씨를 물어보니 처음 굿판에 들어왔을 때 대포수였고 김도삼 어른과 전재성 씨에게 쇠를 배웠단다. 필암서원은 매년 음력 2월 8월 중정(中丁)에 춘향제와 추향제를 지내는데 항상 전재성 씨가 정읍농악대를 끌고 와서 길놀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제향을 담당했다고 한다. 어릴 적 춘추향제뿐 아니라 백중이나 설, 추석 등 절기행사마다 굿판을 보았는데, 어른들이 전재성 씨를 가리켜 열두발 상모를 돌린 사람이라며 감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재성(1897~1976)은 대대로 정읍 대신의 세습무계(당골래) 출신으로 일찍이 조실부모하여 숙부집에 얹혀 살다가 27세 때부터 김도삼에게 쇠를 사사받고 본격적으로 굿판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1946년 서울 창경원에서 열린 제 1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정읍농악이 대상을 받았는데 당시 대포수였다. 대포수는 상쇠와 함께 판을 이끌어 나가는 잡색의 리더격 인물로 모든 기명을 다 알아야 하고, 판국의 끝판에 상쇠와 함께 도둑쟁이 놀이를 이끄는데 특히 만담을 잘해야 한다.

정읍서는 농악치는 사람이 김도삼, 이봉문, 안봉구 셋이 양인이고 나머지는 다 당골들이었다고 한다. 당골들은 자기들 직업 뺏긴다고 양인이라면 절대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전재성은 양인인 김도삼에게 배워서 그랬는지 양인인 이봉문에게 장구를 가르쳐주어 오늘날 설장구 놀이의 맥을 잇게 되었다. 전재성이 일정 때 신태인에서 걸궁 하나를 맡게 되었는데 정월이라 장구가 다 객지로 떠나고 없어서, 이봉문을 불러 넘적다리 두드리면서 설장구를 치고 봉문이 넘적다리 두드리고 부장구를 치고 그러면서 정읍에서 삼십리 길인 신태인까지 걸어갔단다. 그렇게 가르쳐주었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구정놀이를 하는데 꼭 그대로 하더라. 이봉문이 굿판에 들어가 치는데 판굿을 쳐도 그대로 치고, 구정놀이를 쳐도 그대로 치고 해서 지금의 설장구 놀이의 효시가 되었다고 하니 이봉문의 재능도 뛰어나지만 모든 기명(풍물)에 통달했던 전재성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정읍에서 굿이 크게 발달한 데에는 차천자의 공이 크다. 차천자는 강증산의 제자로 본명은 차경석이며 일제 때 정읍에서 보천교를 일으킨 사람이다.

일본은 만주를 정복하고 패망한 청나라 부의 황제를 데려다가 만주국 황제로 옹립했다. 조선 역시 항일정신이 투철하여 우



1 전재성 2 1959년 전국농악대회에서 정음농악단이 전북대표로 참가하여 우승하였다.(사진제공 : 정읍시, 『길따라 마음따라 알콩달콩 정읍이야기』)

선 차경석이 보천교의 상제, 황제를 상징하는 차천자(車天子) 황제로 부르게 묵인 또는 추켜세웠고, 이에 600만의 신도를 보유한(일제 통계) 보천교는 황제의 궁궐을 건축(십일전)하고 궁중음악 동동, 수제천(정읍사)을 기본으로 100명이 공연하는 대형농악대를 조직하였다. 조선왕은 4선무, 중국황제는 8선무였는데 100명이 넘는 대규모 농악대는 황제 위상의 음악으로 정음농악 즉 우도농악이 탄생된 것이다. 전국의 모든 농악은 자진모리로 거의 비슷한 군사훈련 박자이다. 그러나 정음농악은 반드시 그 태평소 소리가 백제가요 정읍사(수제천)의 소리에 맞게 연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움직이는 관현악 반주로 예술가무의 농악대이다.

1894년 1월 10일 밤, 배들평(梨坪) 말목장터에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손에 손에 농기구와 죽창을 든 농민들이 모여들어 갑오농민 제1차봉기가 시작되었다. 말목장터는 부안, 태인, 정읍으로 향하는 길이 교차하는 삼거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었고, 전봉준의 집이 있는 조소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 20여 리 떨어진 고부관아까지 가는 동안, 지나치는 마을마다에서 농민들이 합류하여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는데 이때 당골들이 중심이 되어 곳을 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모든 민란에는 곳을 쳐서 사람들을 모았고, 한국전쟁 때도 곳을 치며 돌격하였다고 한다.

보천교 교주 차경석은 고창 출신으로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아버지가 동학 접주로 처형당하자 14세이던 차경석은 시체터미 사이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오는 강단 있는 소년이었다. 그 소년은 27살이 되어 강증산을 만나 입암면 대흥리에 자리잡게 되었고, 천자를 시위하는 취타대로서 농악대를 발전시킨 것이 정음우도농악이 크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전재성은 정음우도농악의 중심인 세습무계(당골래)로서 상당한 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 군산, 고창, 부안, 영광, 화순, 광주, 장성, 해남, 무안, 진도는 물론 경기도 안성 포천 등 여러 곳을 다니며 천자를 시위하는 취타대로까지 발전한 우도농악을 전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한천농악의 경우 6대 상쇠인 박천한이 장성의 전재성이라는 상쇠를 초빙하여 <우도농악>을 전수 받았으나, 7대 노판순 상쇠에 의해 원래의 <좌도농악>으로 바로 잡아졌다고 전한다. 노판순이 1978년부터 상쇠를 맡았으니 1976년 전재성이 죽은 뒤 다시 좌도농악으로 바뀐 셈인데 아마 굿판의 특성상 당골들의 기예를 따라잡지 못한 때문으로 짐작된다.

1936년 차경석이 죽고 우도농악은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일제말엽에는 아예 굿판이 사라져서 극도의 궁핍에 시달렸다고 한다. 마침 필암서원에 악공이 없어 이모의 주선으로 전재성 씨가 필암서원에 자리 잡았으나, 해방이 되자 필암서원에는 가족만 남겨둔 채 굿판에만 오고 주로 정음농악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말년에는 1976년 죽기 전까지 필암서원에 있었는데 방학 때면 가끔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인연으로 오늘 천상의 울림 정음우도농악을 소개하고자 한다. ♪

놀 줄 모르는 사회, 놀지 못하는 청년들이 놀자

- 데블스

김영빈_ 데블스 공동대표



‘데블스’의 슬로건입니다. 사회는 청년이란 이름 아래 우리를 점점 더 옥죄어 왔고, 우리는 점점 비좁은 길목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경쟁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들을 제치고 살아남았을 때 우리 모습은 전보다 초라했습니다.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데블스’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한 경쟁시대

의 틀을 벗어나 우리만의 재능과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겨울, 퍼포먼스팀 ‘데블스’가 만들어졌고 우리만의 메시지를 담아 길거리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이 각종 언론사에 비춰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14년 여름 광주비엔날레 퍼포먼스 작가로 들어가면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현대인들의 반복되는 일상 탈출 퍼포먼스
(2015 광주비엔날레 20주년 특별퍼포먼스)

이후에는 데블스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생활권 가까이에는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한정적이었고, 특히 학생들은 돈, 시간, 학점, 취업, 아르바이트에 쫓겨 문화예술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재미라는 무기로 청년들이 조금 더 유쾌하고 건강한,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들어보자는 미션을 설정하고, 예술과 스포츠관람이 결합된 파티를 만들어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즐기는 새로운 개념의 여가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세계청년축제 퍼포먼스 총괄·기획, 기업 보해와 전주 한지축제의 홍보영상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을 할수록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쫓아다녔고, 데블스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움



1 데블스 단체사진.(아시아문화전당 잔디밭에서) 2 시민의 날, 윤장현 시장님과 데블스 단체사진.
3 전주한옥마을에 나타난 준향이.(한지문화축제 홍보영상 중) 4 발산마을 할머니들과의 동거동락.(발산창조문화마을에서)

직이게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법인을 설립하여 데블스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폭넓은 분야의 재능 있는 친구들과 함께 문화예술 공동체를 만들어 더욱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했습니다. 공연의 포스터를 제작해주는 디자이너, 촬영, 편집, SNS채널을 관리해 줄 마케터를 영입하고, 우리는 더욱 치열하게 놀기 위해 달렸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맛을 전파했습니다.

현재는 서구 양3동에 있는 발산마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현대자동차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하고 공공미술프리즘과 데블스가 함께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마을 어르신들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주민들은 청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청년들은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공존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주 할머니들과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함께 영화를 만들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습니다. 함께 영상을 만들면서, 마을에 살면서, 공연을 하면서요. 우리는 뺄는 말도, 하는 행동도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하는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딱히 취업 고민을 하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 상사의 눈치에 괴로워하지 않으며, 밥을 새도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준에 어긋나 낙오자가 되지 않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빛날 수 있던 존재였고,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에서 행복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데블스의 활동을 주목해 주세요! ♪

우뇌의 시대, 실버문화를 생각한다

김정희_ 시인, 재단 운영위원장



그리스 격언에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리라'는 말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 까지 노인과 원로들의 지혜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인들의 산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충고와 정보를 편견과 고집으로 치부하고 더 이상 '윗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마주한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09년에는 10.7%를 나타냈으며,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0세에서 4세까지의 어린아이 숫자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찌 보면 '노인'을 규정하는데 있어 나이는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3, 40대의 젊은 나이에도 이미 꿈을 잃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여 이기적인 삶을 사는 오만한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삶의 기회와 목표를 찾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청년 실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본다.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노년이 되면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더 현명해진다고 한다. 그들은 두뇌의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21세기는 왼쪽 뇌보다는 오른쪽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대우 받는 시대이다. 왼쪽 뇌가 디테일에 강하다면 우뇌는 큰 그림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하이테크의 시대에서 하이터치의 시대로 이동하는 시점인 현재는 동시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노년세대의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 우뇌는 디자인 스토리 조

화 공감 놀이 연희 등 예술적 창조 영역을
관장한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에 따른
나 홀로 노년층이 늘어나고 대도시의 노령
인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그들을 위한 후
반기 교육과 실버들의 예술 프로그램에 대
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문화원에는 주부와 은
퇴 후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
는 극단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거
장' 단원들은 일주일에 두 번 대사와 연기
연습에 더위를 잊고 지낸다. 화요일에는 전
통 해학극 "홍부가 기가 막혀"와 수요일은
"아름다운 사인"을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있
다. 특히 "아름다운 사인"은 오는 11월 서구
문화원이 주관하는 제2회 광주시민연극제
참가작품으로 단원들은 더욱 열성으로 참여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은퇴 적령기(?)를 맞
고 있는 배우들에게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극단 '정거장'의 배우들은 아줌마
에서 할머니로 넘어가는 중년의 어르신(?)
들이다. 물론 칠순을 넘긴 꽃보다 청춘의 남
자 배우 두 분이 감초처럼 극단에 활력을 주
고 있다.

아름다운 사인은 한 시체검시관과 일곱 구의 여자시체. 모두 자살로 죽음을 맞이한 그녀들의 사인을 하
나하나 풀어 가는 내용으로, 그녀들을 죽음으로 내 몰은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 매우 유쾌
하게 내용을 풀어 가고 있다. 여자들의 수다를 통하여 웃음을 전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의미심장한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바람피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죄책감, 회사에서의 성희롱, 우울



극단 '정거장' 공연 모습

진공청소기처럼 무서운 힘으로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디지털의 세계로 빨려들고 있지만 사람들의 감성은 이야기가 있는 상품 ‘콘텐츠contents’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들에 자신의 삶을 접목시킨다. 실버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콘텐츠와 스토리의 다양성이다. 노년의 우뇌는 한그루의 나무 보다 전체의 숲을 본다.

증, 병든 몸에 대한 비판, 새 아빠의 성폭행 등... 그녀들의 자살이유이다. 게다가 우울하고 우울한 그녀들의 자살 방법 또한 다양하다. 농약, 수면제, 투신자살, 손목 긋기, 목매기... 이렇듯 그녀들의 수다는 죽음의 방법조차도 자신들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성격의 선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녀들의 죽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사회, 그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은 사회를 이야기 하고 있다.

노인은 이(耳)·목(目)·구(口)·비(鼻)·미(美) 등의 다양한 감각능력을 복합적으로 응집시켜 표현할 수 있는 ‘감성융합’의 달인이다. 또한 그 감성을 통해 소통한다. 진공청소기처럼 무서운 힘으로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디지털의 세계로 빨려들고 있지만 사람들의 감성은 이야기가 있는 상품 ‘콘텐츠contents’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들에 자신의 삶을 접목시킨다. 실버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콘텐츠와 스토리의 다양성이다. 노년의 우뇌는 한그루의 나무 보다 전체의 숲을 본다.

1945년 이후의 출생 세대는 뉴 실버세대로 불린다. 90년대 후반 40대 중반~50대의 나이에 IMF로 인한 명예퇴직과 조기 은퇴한 이로서 현재는 60대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 참여를 보이고 있다.

바슐라르가 말한 것처럼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다. 자연스럽게 환경을 변화시켜 가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첩경이 된다. 주변 주변에 생각이 넘치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년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경험자로서의 자긍심을 키워 줄 수 있어야 하고 지역 사회 문화적 공간과 사람들을 잇는 매개자로서 리더십을 갖게 해야 한다. 이제 행정과 주민이 함께 나서서 실버세대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져야 할 때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도전과 꿈에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곳에서 미래의 문화가 출발할 것이므로. 

영화 속 도시풍경과 빛고을 광주

박홍근_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재단 운영위원



여행은 일상의 생활에서 비일상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몸이 이동하여 비일상 속으로 갈수도 있고, 맘과 관점이 변하여 일상 속에서 비일상을 경험 할 수도 있다. 일상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이다. 직접 여행을 못갈 경우엔 영화를 통하여 간접 여행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때 영화 속에서 깊이 각인 되었던 그 장소를 간다든지, 여행 속에서 경험했던 공간을 영화 속에서 볼 때가 있다. 그땐 아련한 당시의 기억이 생각나 더욱더 깊은 추억여행을 하게 된다.

지역은 그들만의 지역문화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역문화 자산을 잘 찾아야 하고, 이를 잘 가꾸고 포장하며, 잘 홍보도 해야 한다. 이의 수단 중 효과적인 게 뭐가 있을까? 영화, 드라마, 노래, 음식, 건축물, ...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나 인물이 있다. 그 배경에 아름다운 도시와 건축물이 있다. 그 배경들을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건축물에 찬사를 보내고, 쾌적한 도시와 거리를 즐기고 싶어 한다. 거기에 추억과 낭만적인 스토리까지 곁들인다면 더 바랄게 없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냉정과 열정사이>, <로마의 휴일>,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은 스토리와 도시풍경 그리고 건축물들이 잘 어우러진 좋은 예다.

<비포 선라이즈>에선 주인공 제시(에단 호크)와 셀린느(줄리 델피)의 서툰 사랑이야기는 비엔나의 거리, 야간 경관, 거리의 조형물들, 공원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들이 야릇하고 잊지 못할 하룻밤 사랑을 나눈 곳도 도심 속 공원을 배경으로 그려진다.

그 속편 <비포 선셋>에서 두 주인공이 9년 후에 만난 곳은 파리다. 노트담 대성당이 클로즈업되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파리의 거리풍경이 아름답게 잘 묘사된다. 시내 카페에서 나와 세느강변으로 걸어가는 곳은 1960년대 말, 폐선부지를 이용해 공원으로 만든 길이다. 건물과 건물사이를 이어 고가 보행로로 만들어진 산책로가 있다. 아름다운 경치다. 유람선의 배경이 된 세느강변의 우아하고 서정적인 풍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추억여행을 하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



〈냉정과 열정사이〉에선 스무살에 헤어진 여주인공 ‘아오이’와 남자 주인공 ‘준세이’가 10년뒤에 만나자고 약속한다. 그곳은 예술의 도시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 종탑이다. 그들의 약속장소로 가는 길은 중세건축물로 가득 찬 피렌체 시내의 풍경들이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일명 꽃의 도시라는 피렌체의 지상과 하늘을 멋진 앵글로 잘 감상할 수 있다. 지금도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몇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옥상 전망대에 오른다.

〈로마의 휴일〉은 로마의 주요 명소가 배경이다. 주인공들이 로마거리를 활보하고 훌륭한 도시유적과 풍경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주인공인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사먹던 스페인광장과 잠깐 잠에 빠졌다가 기자인 남자주인공을 만나는 곳은 트레비 분수다. 지금도 그곳은 여행자들에게 수많은 생각과 영화 속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추억 쌓기를 하는 장소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는 여주인공 애니(맥 라이언)와 건축가인 남자주인공 샘(톰 행크스) 부자의 만남이 약속된 장소가 있다. 그곳은 아르테코 양식의 독특한 멋이 있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의 옥상전망대였다. 그 후 이곳은 추억속의 장소가 되었으며, 영화 팬들과 연인 사이에 낭만서린 만남의 장소가 되어 더욱더 유명해 졌다. 뉴욕이라는 도시 풍경들은 여러 영화의 무대로도 등장을 한다.

부산은 〈친구〉, 〈해운대〉, 〈국제시장〉, 〈부산행〉이라는 영화 배경이다.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다시 이름을 알린다.

광주에선 어떤 류의 영화가 가능할까?

이런 곳이 있는데...

뉴욕 하이라인 파크처럼 폐선부지가 공원화된 푸른길 공원,

연인의 추억이 깃든 트레비 분수 같은 애절한 추억의 옛도청 앞 분수, 예술인의 공간이 된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사직공원과 예술의 거리, 프랑스 혁명 100주년 때 건립된 에펠탑과 같은 사직타워, 전통과 근대, 현대의 건축물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양림동, 추억의 시간여행과 현대의 멋을 느낄 수 있는 1913송정역시장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것 아닌가? 그러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별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지역의 역량이다.

세느강처럼 유람선은 떠올 수는 없으나 잘(?) 조성된 광주천,
두오모 성당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처럼은 아니지만 무등산과 도심을 볼 수 있는 전일빌딩 옥상,
지하의 루브르 박물관처럼 옛 도청 일원에 들어선 지하의 아시아문화전당,
인간적인 가로로 잘 정비되어 젊음이 넘치는 스페인 광장과 주변골목 같은 충장로와 금남로,
연인의 추억이 깃든 트레비 분수 같은 애절한 추억의 옛도청 앞 분수,
예술인의 공간이 된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사직공원과 예술의 거리,
프랑스 혁명 100주년 때 건립된 에펠탑과 같은 사직타워,
전통과 근대, 현대의 건축물과 이야기가 공존하는 양림동,
추억의 시간여행과 현대의 멋을 느낄 수 있는 1913송정역시장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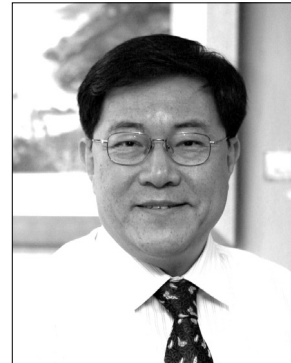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것 아닌가? 그러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별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그게 지역의 역량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의 경쟁시대이다. 각각의 도시들은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과 문화 그리고 도시 경관에 기울이는 노력이 각별하다.

로마, 그리스, 피렌체, 비엔나, 파리, 이집트, 캄보디아 등은 도시와 건축물에 이야기와 신화를 추가하여 관광 상품화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를 보겠다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돈으로 먹고 산다. 즉 ‘유적(건축물, 장소)+이야기+디자인=브랜드=돈’이라는 등식이 가능하다.

로마 여행시 들었던 가이드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곳은 조상 덕에 먹고 산다’고...우린 지금 조상으로부터 무엇을 물려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후손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행복한 한국, 정치적 관심을 줄이고 사생활 보호에 나서자



김영주_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재단 진흥이사

장마도 거의 끝나가며 본격적인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힌다. 오늘도 마스크엔 짜증스럽고 화나는 소식들이 넘친다.

정치인·고위공직자·법조계 등 사회 지도층의 부패·비리야 단골 메뉴이니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최근 ‘찌라시’의 단골 메뉴임 즉한 폭로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유명 연예인들의 성추문·성폭행이 줄줄이 뉴스가 됐고, 스포츠스타도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 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들은 앞다투어 사실여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까지 만들고 쏟아낸다. 관음증에 사로잡힌 시청자·독자들은 새로운 애깃거리를 찾고 SNS로, 입으로 쾌감을 좇는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우리나라 최대기업 총수의 성매매 의혹이 온 SNS를 떠돌고 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일부 국민의 관음적 관심과 일탈이 전 국민의 건전한 정서에 급속히 전염되고 있다.

뉴스타파 디스패치 등 이미 익숙한 매체를 필두로 다양한 폭로 SNS 계정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란 사진기반 소셜미디어에 ‘강남패치’란 이름의 계정은 400여 건의 젊은 여성 신상정보를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런 패치란 이름을 단 폭로 계정들도 강남패치·한남패치·오메가패치·홍대패치 등 수없이 많다. 사이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폭로로 가정이 깨지고 일자리를 잃고 정신병에 걸리고 자살기도자도 생기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신상털이가 별 죄의식 없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이를 보는 일반 국민도 죄의식 없이 배설의 쾌감을 즐기고 있다. 신상털이가 기본인데 그 내용이 사실이면 사생활 침해 정도지만 과장·오해를 넘어 거짓이나 음해란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불행히도 이런 새로운 퇴폐·선정적인 매체나 계정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있어 퇴치가 어렵다.

이제 이런 문제를 ‘길가다 벼락 맞는’ 우연이라며 개인이나 피해자에 맡겨 두기엔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개인의 신상털이가 별 죄의식 없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이를 보는 일반 국민도 죄의식 없이 배설의 쾌감을 즐기고 있다. 신상털이가 기본인데 그 내용이 사실이면 사생활 침해 정도지만 과장·오해를 넘어 거짓이나 음해란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 불행히도 이런 새로운 퇴폐·선정적인 매체나 제정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있어 퇴치가 어렵다.

심각하다. ‘사이버테러’를 당한 당사자의 실제적 정신적인 피해가 삶을 바꿀 정도로 심각하고, 곤궁속의 타인의 삶을 엿보려는 집단관음증의 오염 등 사회적인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병적인 흐름에 대한 단호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미디어리터러시(방송·신문·인터넷 등에 나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평가해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처방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처방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여러 정보를 파악하고 평가하라는 접근은 정치나 언론의 책임을 회피하는 본말전도적인 해법이다. 여러 매체들이 언론의 역할과 사명,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 국민은 미디어리터러시 보다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의 일자리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치나 언론이 지켜 줄 이유도 없다. 정치가나 언론인은 그들의 윤리와 사명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 우리 국민은 정치나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의한 보도와 정보를 믿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 봐도 우리처럼 미디어리터러시에 앞선 국민은 없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우리 국민은 몇 사람의 전문가가 나와 하루 종일 떠드는 종편, 감각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빠진다. 우리는 과도한 정치적 관심으로 생긴 스트레스로 쉬운 행복을 낭비하고 있다. 정치와 언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자각과 국민적 관심과 압박이 시급하다. 찌라시나 인터넷에 범람하는 유해 매체를 관리하는 일도 시급하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라면 유행처럼 번지는 퇴폐·불신·무책임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에 그 피해에 상응하는 무거운 벌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나 언론이 앞장서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보수적인 분위기를 선도해야 한다. 하루 빨리 법·제도를 제정·보안해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제도적·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소수의 가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수많은 피해자를 창작해 내고 있다. 집단관음증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사이버 테러’에 대한 당국의 매체들과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장치와 조치가 시급하다. ♪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제6기 역사문화 시민대학 “우리시대,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 성료



제6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은 ‘우리시대,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5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4월 28일(목) 첫 강좌를 시작으로 6월 2일(목)까지 매주 목요일에 강좌와 문화탐방을 개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강좌는 •제1강좌 4월 28일 오후 2시, 「소설문학 속의 땅 이야기」(문순태 소설가) •제2강좌 5월 12일 오후 2시, 「지명으로 본 광주 땅 이야기」(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 •제3강좌 5월 19일 오후 2시, 「삶의 기록인 토지의 변천사」(노경수 광주대 교수) •제4강좌 5월 26일 오후 2시, 「땅에서 본 인물풍수」(김두규 우석대 교수) 등이 차례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6월 2일 목요일에는 전북 완주로 떠나는 인문학여행도 병행했다. 2011년부터 기후, 질병, 음식, 여행, 사랑 등 독특하고 깊이 있는 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평 받아온 역사문화 시민대학은, 올해 ‘땅’을 주제로 문학, 역사, 지명, 풍수 등으로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인문학여행을 통해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동구청장과의 간담회 개최하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동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우리 재단 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화) 오후 5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재단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동구의 역할, 동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과 문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다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광주역사박물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 열려

우리 재단이 주관한 ‘광주역사박물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포럼이 지난 5월 3일(화)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포럼은, 최근에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역사관 구축 계획은 문화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역사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고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많아, 도시 전체의 맥락에서 광주역사박물관의 현재적 의미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공론의 장이었다.

토론회 좌장은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광주역사관 구축 추진과정과 방향’, 김덕진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광주역사관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서 박재상 문화전당 학예연구사, 박준수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박선정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백승현 대동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참여하여 각 각 광주역사관의 콘텐츠, 조직 운영과 경영, 역사성과 지역성, 시민과의 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다.

한편, 우리 재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광주시에 전달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광주읍성 흔적을 통해 미래문화유산 남기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하다

– 조선시대 읍성 만나기, 고창읍성 탐방



지난 5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프로그램 〈광주읍성의 흔적을 통해 미래문화유산 남기기〉의 일환으로 현재 잘 보존되어 있는 고창읍성을 만나러 초등 학생 참가자와 가족 약 40여 명이 함께 동행했다. 이영미 고창문화해설사의 알찬 해설과 함께 고창 청보리밭의 도깨비숲에서 무장현 관아와 읍성, 신재효고택, 고창읍성까지 탐방하였다.

– 주홍 작가와 함께 하는 광주읍성 꿈다락 이야기



지난 5월 28일 토요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기념하여 주홍 샌드애니메이션 작가와 함께 하는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특강수업이 초등학생, 부모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홍 작가가 들려주는 광주폴리 이야기, 광주에 살아있는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의 인성에 관한 이야기 등 풍성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 1기 참가자 결과발표회 열려



지난 7월 23일 토요일, 1기 참가자, 가족, 강사, 재단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기 광주읍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결과 발표회가 재단 강의실 및 광주국제교류센터 갤러리에서 열렸다. 1부는 재단강의실에서 4월 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했던 교육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한 1기 참가자가 제작한 미래문화유산(나만의 폴리) 작품을 가족과 함께 꾸며보는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강의실 한 쪽에서는 3D프린터를 이용한 3D 출력물의 나오는 전 과정을 가족과 지켜보며 3D프린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2부는 광주국제교류센터 갤러리에 전시된 1기 참가자가 그리고 만들었던 모든 결과물, 활동사진 등을 참석한 모두가 확인하는 즐거운 다과회를 조촐하게 열었다. 이어 모듬별 소감과 참여가족의 소감 발표로 결과발표회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 ‘광주읍성 흔적을 통해 미래문화유산 남기기’ 2기 개강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광주읍성 흔적을 통해 미래문화유산 남기기’ 프로그램 2기 참가자를 모집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첫 교육을 진행하였다.

〈광주읍성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은 7월 30일(토)을 시작으로 11월 26일(토)까지 총 17회 차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주요 활동내용은 •광주 도심 속으로 Go Go! •광주읍성 스탬프 도장 (3D프린팅) 만들기 •내가 만든 읍성폴리(3D프린팅) 만들기 •가족과 함께 떠나는 문화탐방 “지금 조선시대 읍성 만나러 갑니다”(탐방) •예술가와의 만남(특강) 등이다.

재단소식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1차 자문선정위원회의 열려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 재단 회의실에서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1차 자문선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자문회의에는 재단의 백수인 이사장과 이기훈 상임이사, 자문위원인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동순 조선대 교수, 조광철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천득염 전남대 교수 그리고 책임연구원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전임연구원 위주영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구책임 맡은 김덕진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은 사업보고에서 "현재 광주지역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자원 분류 및 1,000개의 데이터를 수집 정리중에 있으며, 오늘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이후 사업에서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자문회의에서 •인물, 장소, 사건, 스토리 등을 염두에 두고 자원을 수집하고 정리해 나갈 것 •영역별 시대별 자원의 균등한 안배가 필요하며, 스토리텔링 할 때 활용이 될 부분들에 대한 관심 갖을 것 •근·현대 인물 가운데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데이터 확보할 것 •예산의 문제 및 100개의 스토리텔링의 범위가 광범위해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한 부문 예를 들면 인물 및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 검토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자문회의를 토대로 김덕진 교수(책임연구위원)와 연구진은 1,000개의 역사문화자원 DB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1,000개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본으로 100개의 스토리텔링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선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2차 자문회의는 8월 중순 경에 개최될 예정이다.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 시민포럼 열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 광주예총(회장 최규철), 광



주민예총(회장 윤만식) 등 지역의 예술·시민문화단체들이 7월 6일(수)과 7월 13일(수)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시민포럼을 시민예술문화단체 회원과, 관련 공무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장애인문화협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오월어머니집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시민포럼은, 민선 6기가 표방하는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문화행정의 구현 및 전당 개관 이후 조성사업의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부응한 광주시의 책임과 역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7월 6일(수) 「시민참여, 문화행정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열리는 첫 번째 평가 포럼 좌장은 이동순 조선대 교수가 맡았으며, 박경섭 전남대 연구교수가 주제발표, 김일웅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서 강만 광주예총 수석부회장,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조성식 광주연구소 기획협력처장,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7월 13일(수) 「조성사업, 광주시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를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평가 포럼 좌장은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가 맡았으며, 김하림 조선대 교수가 주제발표, 김인천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서 윤만식 광주주민예총 회장,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성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정성구 도시문화집단 CS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2016 상반기 회원단체 워크숍 개최

지난 7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함평 나산 박병주 상임대표 자택에서 우리 단체가 간사단체로 있는 2016년도 광주문화도시협의



회 상반기 회원단체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회원단체 8개 단체(약 20명)가 참석하여 광주문도협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상반기 문도협은 계획 대비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문화현안에 대한 선도적 대응 및 정책 제안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유익미성을 확대하였으나, 회원단체의 참여기회 감소 및 주요사업에서의 확장 노력이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정책포럼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후속조치 활동을 전개하고, 차기 간사단체 양성 및 하반기 회원단체 워크숍 개최하며 주요사업 확장 및 신규회원단체 확보 등 문도협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하고,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세부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서석초 정문 보행전용도로 훼손에 따른 긴급간담회 열려



서석초 정문 보행전용도로 훼손에 따른 긴급 간담회가 시의원, 구의원, 시청과 구청의 관계자, 관련 있는 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28일(목) 오전 10시에 동구 벤처빌딩 7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 교통연구실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과정과 현황, 박흥근 건축사의 발표, 이어서 참석자

의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이야기들이 다루어졌다.

• 회원

2016 회원확대운동 다짐 및 임원 봄 나들이 성황리에 열려



2016회원확대운동 다짐 및 임원 봄 나들이가 20여 명이 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4월 9일(토) 화순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재단의 인적, 물적 토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회원확대운동의 출발을 알리고, 신규 임원으로 참여한 분들의 환영과 재단 임원의 친목과 교류를 위하여 개최되었다.

“생활사박물관 안내를 해주신 염낙귀 세무사님, 모임 장소로 카페 공간을 흔쾌히 오픈해주신 김종필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책마실 세미나 - 새로운 출발



재단의 책마실 모임이 새롭게 개편된 가운데 첫 모임이 지난 4월

재단소식

19일(화)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재단 창립 때부터 진행된 공부모임은 올해부터는 매월 한 번씩 책을 선정해서 발표와 참석자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임으로 전환하여 추진기로 하고, 첫 번째 모임은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에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였다. 이어 현재까지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신화에 그려진 여신들', '이슈 한국사' 등을 공부하였다.

재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임원·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하다

우리 재단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지난 6월 20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임원·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28명을 대상으로 문자와 메일을 통해 실시하였고, 20%(45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 문항을 통해 재단활동에 대해서 87%가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회보 『창』을 통하여 재단 소식을 접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시민문화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문화조사 및 연구 활동(24.4%)과 문화담론 및 문화민주주의 사업(20%)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재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재단 임원워크숍 열려...



재단 상반기 보고 및 하반기 전망 수립, 재단 임원과의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한 재단 임원 워크숍이 지난 7월 9일(토)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촌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상반기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단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회원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핵심사업으로

역량 집중, 회원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는 프로그램 기획, 재단의 미래 비전T/F팀을 구성기로 하였다.

한편, 재단 임원과의 교류 모임은 지속적으로 추진기로 하고, 8월 11일에 민어데이 행사를 개최기로 하였다.

재단임원 문화번개팅 - 민어데이 개최하다



임원 워크숍 후속조치로 문화번개팅 '민어데이'가 지난 8월 11일 (목) 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신영 운영위원 자택(신안 지도)에서 열렸다. 이날 번개팅에서 참석한 임원, 회원이 함께 1분 스피치 자기소개 및 시낭송, 판소리 등 다양한 재능 나눔으로 즐거운 소통시간을 가졌다.

"민어데이 위해 모임장소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신 박신영 운영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조직

제45차 운영위원회 - 민선 6기 상반기 문화정책 평가하기로



제45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월) 오후 6시 30분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정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각 위원회와 사무처의 사업 및 재정보고, 부의 안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시장을 표방하는 민선 6기 임기가 절반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문화행정과 조성사업과 관련된 광주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하고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은 정책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 위임키로 하였다. 또한 임원 몸나들이 및 회원확대운동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회원확대운동에 운영위원들이 적극 참여키로 하고, 제안된 목표를 가능한 기일 내에 달성키로 하였다.

재단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2016년 4월 25일자로 재단에 근무하게 된 이지은 총무간사를 소개합니다.



[회원소식]

송광릉 재단회원, 제36회 한국출판학회상 기획편집부문 수상하다.

제36회 한국출판학회상에 (주)미래엔(경영부문), 심미안출판사(대표 송광릉/기획편집부문), 저자 이두영(저술연구부문), 심재철 교수(특별공로부문) 등이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회장 윤세민)는 지난 2월 23일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제 36회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72년 시작된 한국출판학회상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와 출판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경영부문, 기획편집부문, 저술연구부문, 특별공로부문 등 총 네 부문으로 나뉜다. 올해 기획편집부문에 선정된 심미안출판사(대표 송광릉)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인문, 문학, 교양 분야의 출판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출판학회는 국내 지역출판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출판 기획의 우수함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 <머니투데이> 발췌

광주시민대상 故 문병란 시인 등 5명 선정되다

광주시가 2016년도 광주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5월 12일

사회봉사·학술·예술·체육·지역경제진흥 등 5개 부문에서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 사회봉사대상 황의남(52·황솔촌 대표이사) • 학술대상 윤택림(59·전남대병원장) • 예술대상 고(故) 문병란 시인 • 체육대상 문종민(61·광주체육고 교장) • 지역경제진흥대상 박치영(72·주)모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이다. 문병란 시인은 시를 매개로 민중과 소통해 한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며, 문종민 교장은 30여 년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국가대표 선수를 발굴·육성해 체육지도자로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공헌했다. - <광주일보> 발췌

故 문병란 시인(재단이사장) 추모사업 한·일 공동 추진되다

“여기 한 평생 짓다가 간 뚝뚝한 바보가 묻혀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시인 문병란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다. 문병란 시인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꿈꾸며 독재 정권에 맞섰던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인이다. 그는 평생 ‘광



주의 어머니’ 무등산을 우러르며 문학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시대의 선각자였다.

많은 문인들은 그를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과 “거리의 교사”로 기억한다.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고초를 당했지만 줄곧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조선대학교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서은문학연구소를 열어 문학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용아 박용철 기념사업 등 지역문학의 현안에도 문단 어른으로서 힘을 쏟았다.

서은 문병란(1934~2015) 시인을 기리는 추모기념사업이 한일 양국에서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 일본의 사회현상 분석의 권위자이자 시인인 주오(中央)대 히로오카 모리호(廣岡守穂)교수가 29일 광주를 방문, 김준태 시인 등 서은 문병란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한 데서 알려졌다.

1951년 가나자와시(金澤市)에서 태어난 히로오카 교수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정치사상사를 전공했다. 현재는 일본 주오대에 재직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뿐 아니라 문학과 한·일 문화현상에 대해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광주5·18민주화 운동과 문병란 문학세계를 알리는 데 심혈을 기

회원소식

울이고 있다.

히로오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은 문병란 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에서 기념사업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서의 문병란 기념사업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내년 중 문병란 작품집의 한·일 동시 출간을 목표로 양국 문인 교류와 인터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은 문학회 황일봉이사장, 김준태·이창민 시인,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해 문병란 시인의 추모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 문병란 시인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 <광주일보> 발췌

양형렬 재단이사, 조부 양태승 전 고창고보 설립자 무궁화장 추서되다

일제강점기 민족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화순 출신 양태승 전 고창고등보통학교(현 고창고)설립자이자 교장(1889~1955)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다. 양 전 교장의 손자인 양형렬 광주보건진흥대표(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는 최근 조부가 교육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됐다고 밝혔다. 양 전 교장은 1922년 조선 최초의 민립 학교이자 호남 지역 최초의 민족사학인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 양 전 교장은 1889년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에서 유학자인 양회규씨와 여영호씨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조선조 신진사림의 큰 맥으로 이상적인 왕조정치를 실현하려다 좌절된 호남사림의 거봉 학포(學圃) 양팽손(1488~1545)의 15대손이다. '빠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양팽손이 한 평생 개혁에 대한 열망과 좌절을 안고 살아갔듯이 일평생 빼앗긴 국권을 찾으려는 신념으로 일관했다. 양 전 교장은 고창고보 교장직을 마친 후에는 계성학교 부교장과 보은농업학교 교장직을 수행하는 등 전 생애에 걸쳐 교육을 매개로 민족정신 고취와 항일운동에 매진했다.

- <광주일보> 발췌

김양균 운영위원, 제8회 광주예술난장 굿판 개최하다

광주예술난장 굿판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순홍)와 (사)전통문화연구회 일씨는 8월 26~28일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제8회 광주예술난장 굿판'을 진행했다.

26일에는 신명난 마을축제, 마실마당과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개관을 기념해 마당밧이와 성주굿을 올리는 굿마당이 진행됐다.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는 풍물패의 들당산굿으로 시작해 일췌에서 제작한 대형탈을 무대로 모시는 영신(迎神), 합굿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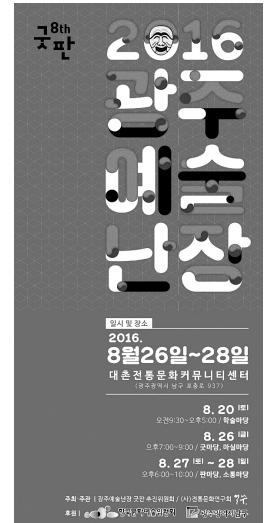
삼촌밴드, 이크택견 등 5개의 작품으로 판마당이 진행됐다. 합굿마을의 기점놀이와 전주의 여러마을에서 농기를 가지고 벌이던 민속놀이로 중단됐다가 1974년 재현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놀이다. 이날 마지막 작품인 일췌와 빅사이즈 크루가 펼치는 '탈 파티'는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가 되는 무대다. 일췌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높이 3m 대형탈을 제작했다. 7월 첫 주부터 시작해 5주간의 제작과정으로 선보였다. 8월 23일 오후 6시부터 시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보는 시민워크숍을 금남로에서 진행했다. 28일 오후 6시부터는 프로젝트 모아, 솟대쟁이놀이보존회, 서용호, 놀이마당 올림 등 5개 팀이 공연을 선보였다. 솟대쟁이놀이는 진주를 본거지로 활동하다 중단돼 80여년 만에 복원한 전통놀이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연행된다. 마지막 송신(送神)에서는 축제의 막을 내리며 탈을 소각한다. 행사기간 동안 소통마당에서는 영탈, 허재비, 낚, 지전, 탈 등 다양한 굿물을 제작해 볼 수 있고, 잔치마당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막, 카페 등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되었다.

- <전남매일> 발췌

이이남 회원, 2016 조지타운 페스티벌 특별전 초대되다

7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달 동안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진행되는 '2016 조지타운 페스티벌'에 미디어 아트 특별전 '이이남의 굿모닝 디지털(Lee Lee Nam's Good Morning Digital)'이 진행됐다. '조지타운 페스티벌'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리는 동남아 대표 축제로 지난 2010년 조지타운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기념해 시작됐다.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 공연과 크로스-컬처 콜라보레이션, 로컬 커



뮤니티 특유의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 현재 아시아의 주요 예술행사로 자리 잡았다. 전시를 기획한 총 감독인 조 시덕은 지난해 담양의 이이남 아트센터를 방문하고, 미디어로 구현한 작가의 여러 작품들에 깊은 감명을 받아 페스티벌 '미디어 특별전'을 계획했다. 행사와 공연,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진행되는 조지타운 페스티벌 중 독립적인 공간 안에서의 '미디어 아트 특별전-이이남의 굿모닝 디지털'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기존에 선보였던 작품인 '만화 병풍' '몽명전투도-스타워즈' '왕시창의 산수도' '산-우는 여자' '진주귀걸이 소녀의 눈물'은 물론 신작인 '2016 모나리자 바니타스'가 전시된다. 한편 이이남 작가는 •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의 '한국의 자개' 전(4월 29일~10월 23일) • 노르웨이 베스트포센 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아티스트 그룹전' (5월 7일~10월 2일) • 부산 비엔날레-흔들하는 지구(9월 3일~11월 30일) • 북경 화이트박스 '빛의 시그널' 개인전(9월 10일~10월 9일) • 벨기에 겐트 지브라스트라트에서의 개인전(11월 5일~12월 4일) 등 세계무대의 러브콜을 받으며 다양한 작품과 전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무등일보> 발췌

이이남 회원, 오스트리아 린즈에서 '다른 천사들'을 주제로 한 그룹전에 참여하다

광주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10월 16일까지 오스트리아 린즈에서 '다른 천사들'을 주제로 한 그룹전에 참여한다. 오스트리아 린즈에 위치한 비영리 아트 기관인 'OO Kulturquartier'에서 개최되는 전시다. 이 기관은 탄탄한 현대미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오스트리아의 북쪽지방 문화센터와 OK 현대미술센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이남 작가는 이번 그룹전에 붓의 0.01초 단위 움직임으로 나뉜 먹의 입자들

이 글자가 돼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글자로 만들어지는 추사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자승자박'과 조선 초기 김시습이 지은 한문소설인 '취유부벽정기'를 디지털로 재해석해 전시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게 될 작품 '취유부벽정기'는 조선 초기 김시습이 지은 동명의 한문소설을 모티브로 했다. 이 작가는 한국의 천사를 '선녀'로 설정하고, 원작의 내용을 디지털로 재해석해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교묘하게 연결한다. '취유부벽정기'의 글자들이 4개의 모니터를 가로질러 흘러나오면서 추상적이고



생소한 글자들과 천사의 의미 사이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머릿속에 새로운 상상의 창조물을 그려낸다.

- <전남일보> 발췌

엄수경 회원, 『코 없는 벼수』 도서, 8월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6년도 '8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화가의 마지막 그림』(이유리, 서해문집) 등 10종과 '8월 청소년 권장도서'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읽는 마지막 선비 최익현』(이승하, 나남) 등 9종을 선정, 발표했다.

'8월 청소년 권장도서'로는 일제에 맞서 싸운 조선의 마지막 선비 면암 최익현의 대쪽 같은 삶을 조

명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읽는 마지막 선비 최익현』(이승하, 나남), 10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들로 구성된 교육소설 『사춘기 수호천사』(이범·홍은경, 다산지식하우스), 우리나라 설화 중 돌로 만든 장승의 코를 깎아 달여 마셔 임신을 했다는 '벼수' 이야기를 판소리 서술 양식을 차용하여 각색한 창작판소리 동화 『코 없는 벼수』(엄수경 글, 양준호 그림, 문학들) 등 9종이다. - <문화저널21>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 남도서 세 개의 모티브 찾다 '추상展' 참여하다

문화예술플랫폼MBA(대표 장민한, 이하 MBA)는 지난 8월 9일부터 19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추상, 그 이후의 추상展 (기획: 소나영, 정채경, 조가연, 양다솔)을 개최했다. 이는 남도 추상미술의 근원을 재조명하고, 그 명맥을 잇는 후속세대 작가들을 매칭하여 전시함으로써 현대미술에서의 미술사적 위치를 조망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남도 추상미술 대표작가로 양수아, 김보현, 오송윤 화백, 그리고 후속세대작가로 기대용, 김명석, 정광희, 진시영, 이정기, 임수영, 임희진, 장원석 작가가 참여하였다.

본 전시에서는 남도 비정형추상의 명맥을 잇는 동시에, 동시대 추상미술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는 후속세대 작가로 기대용, 김명석, 정광희, 진시영을 소개했다. 남도의 다채로운 색에 영향을 받은 진시영의 작업은 무용수의 즉흥적인 신체움직임의 흔적을 빛으로 치환하여 보여줌으로써 디지털 시대 추상미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광주타임즈> 발췌

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윤현석 운영위원, 〈애프터웍스〉 부르어리&펍 오픈하다.

지난 8월 15일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가 〈애프터웍스 - 퇴근 후 한잔이 행복한 집을 컨셉으로 한 부르어리&펍〉을 오픈했다. 이곳에서 윤 대표가 공동 개발한 광산구 우리밀과 함평 보리로 만든 '광주맥주'를 맛볼 수 있다. 그리고 무등산 필스너, 광산바이젠, 동명ESA, 영산강둔켈 등 직접 브랜딩한 다양한 맥주도 함께 만날 수 있다.

- 주 소 광주시 동구 동명로14번길 29 (동명동)
- 연락처 062-225-1963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서순복 이사 자녀(딸) 결혼
- 박선정 정책위원장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청 단장 및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취임
- 안태기 시민문화교류위원장 광주세계김치축제 2016 총감독 선임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남성숙 이사 부친상
- 박홍근 운영위원 부친상
- 김일웅 회원 부친상
- 박미경 회원 부친상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김광옥(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민병은(광주시의회 사무처)
- 박상호(회사원)
- 박홍근(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 서영진(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유병연(회사원)
- 이기수(건축사)
- 이동순(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 이준엽(불교신문 광주·전남 지사장)
- 천금영(자영업자)
- 최현택(한솔페이퍼텍(주) 본부장)
- 황인옥(인스나인 대표)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

〈부이사장〉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희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 사〉

김대현 전남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김병기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상임대표

김선출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팀장

김영주 (사)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하림 조선대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양형렬 국제로타리 전 총재

양혜령 치과의사

오건규 화가

윤만식 광주민예총 대표

이기훈 상임이사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승권 조선대 교수

이연수 호남대 교수

이철우 전남대 교수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정현애 전 광주시의원 부의장

지형원 문화통 대표

차일현 세무사, 전 조선대 교수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오경희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희 시인,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광주시남구관광청 단장
 위 원 강성욱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팀장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동순 조선대 교수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지역문화콘텐츠위원회〉

위원장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위 원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주영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한예원 조선대 교수

〈시민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안태기 광주대 교수
 위 원 강혜경 소촌아트팩토리 센터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정순기 광주시연극협회 회장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부회장〉

오형근 의사
 김경옥 약사

〈진흥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이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HUI 대표이사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사 사장
 이원형 전 호남대 교수
 정병수 남부대 교수
 정선택 (주)대운광고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장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민정 사업팀장
 이지은 총무간사

재단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김덕진 소장
 김원중 연구실장
 위주영 연구원



편집 후기

여름은 절기(節氣)로는 입하(立夏)부터 입추(立秋) 전까지이다.
어원을 살피면 모든 식물이 열매를 맺는 계절로 [열매:實]이다.

올 여름은 어떤 열매를 독하게 맺으려는 걸까.
계속되는 폭염 특보로 선풍기와 냉방기 앞을 떠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는 도시 숲의 중요성……

여름호 『창』에서는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를 위한 시민 포럼을 특집으로 실었다. 시민참여 문화행정의 현주소와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응하는 광주시의 전략을 함께 듣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돌아보았다. 모두 각자의 시선이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활자 너머를 읽어 보고 짚어보았으면.

『문화인 탐구생활』에서 만나본 김용철 문화관광 해설사와 김근하 여행사업부장의 일상 이야기, 문화관 하나 없는 문화도시 광주의 속내와 동구의 도심재생을 다룬 문화진단은 늘 거기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들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았다.

‘…보고 듣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서두르면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 위의 발자국이 다음 사람의 길이고,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희망일까. 문득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라는 『창』의 표제를 떠올린다.

한여름 더위에 옥고 주시느라 애쓰신 필진 분들께 경쾌한 빗소리의 음악을 들으며 시원한 수박이라도 대접하고 싶다. 마음을 전하며.

